

성경의 역사

창조

타락

격변

혼잡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



©2006 Answer in Genesis

창세기를 통한 복음5

유일한 길 *Only Way*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하나요?”

언젠가 유학생 탐사여행 마지막 날 한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던진 질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 질문하는 학생은 필자의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한편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다소 조심스런 표정이었다. 이런 유의 질문은, 탐사여행 막바지면 가끔씩 등장하곤 한다. 어쩌면 탐사여행 동안에 성경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냈을 때 일종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도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겠지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 ”

이 학생은 말로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구원 받지 못할 것이라는 표정은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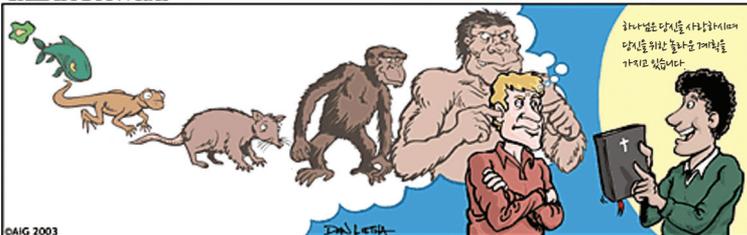
이런 궁금증은 복음이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부터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거나, 설령 창조부터라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로 확실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 창조 당시의 좋았던 상황에서 가시덤불과 영경귀가 나고, 인류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전달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른 전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인류에 홍수심판이 찾아왔다. 당시의 전 인류가 죽고 노아가족 여덟 명만이 살아남았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구원 받은 노아가족은 창조부터 홍수심판까지의 역사를 홍수 이후에 낳은 자식들에게 정확히 전달했어야 했다. 거기에 몰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그러나 이 진짜 역사는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 몇 세대를 지나지 않고 후세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하셔서 인류를 흠으셨다.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담과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 진짜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전달했어야 했다. 창조와 심판뿐 아니라 왜 우리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어 불편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러나 이때도 세대를 거치며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흠어진 후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모두 잊게 되었다. 창조자도, 그분께서 하셨던 일도, 인류가 행했던 죄악도 모두 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창조자 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 길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진짜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롬 3:2).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롬 5:8). 예수님께서서는 뜬금없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역사 과정 가운데 오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전의 조상들이 다음 세대에게 참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롬 3:23).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위인전에서 완벽하게 묘사된 이순신 장군도 예외일 수 없다. 세상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한다. “모두 죽었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된 곳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 곳이란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떠난 성경책이 도달된 곳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1). 이 하나님의 기본적 방법은 변함

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바벨탑을 경험했던 조상들에게 그랬듯이 이 진짜 역사를 성경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 것이다. 참으로 감격이 아닌가? 이 사실의 전달자로 우리가 선택되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자신의 형상임을 인정하신 것 같지 않은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자신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을 완전한 사실 역사로 인정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에야 왜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만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 글의 서두에 던진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실 거야. 그러나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는 내심은 여전히 창조-타락-홍수심판-바벨탑 혼돈이라는 창세기 역사와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자신’의 판단이다. 이런 대답에 대해 당연히 ‘하나님의 다른 조치가 있다면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정말로 복음의 감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생각 아닌가? 과연 이런 생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복음의 감격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창세기의 확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필수적이다.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과 인류가 창세기 기록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십 억년간 진화역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물에는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유사 이론까지 포함한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창세기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 아래 말씀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든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시키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롬 10:14, 15).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창세기 7:2),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창세기 7:8),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창세기 8:20)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 하실 때는 정결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 구분 없이 종류대로 창조 하셨다는 사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노아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는 동물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된다. 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규정과 종류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문점들과 의견들이 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되는 것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제사에 사용되었던 동물들로는 흠 없는 수소, 암소, 숫양, 암양, 숫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이며, 식용으로 사용되었던 동물들(레 11:2)은 제사에 사용되었던 동물들 외에 사슴(왕상 4:23), 영양, 노루, 산염소, 산양(신 14:5),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레위기 11:9) 등이 있다. 정결한 동물들의 특징은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레위기 11:3)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레위기 11:9)들이다.

정결한 짐승에 들지 않은 동물들은 모두 다 부정한 동물들인데 성경에 명시 되어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낙타, 사반(오소리), 토끼 등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레위기 11:4-6),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레위기 11:7) 이 고기들을 먹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명단에서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비평가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로 이 동물의 이름은 '아르네베쓰(arnabeth)'인데 토끼(hare)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이다. 단지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든 동물들을 현재 살고 있는 동물들과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동물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노아홍수 이후에 있었던 빙하시대 이후에 4,000여 년 동안 많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멸종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새의 명단에는,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뚝가리와 말뚝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과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 (레위기 11:13-19) 그리고 매 종류와 썩독새, 따오기, 왜가리, 학(신명기 14:12-18) 등이다. 성경에는 정결하지 못한 새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들인데 창조 당시에 이들이 먹었던 음식인 푸른 풀(창세기 1:30) 대신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는 (혹은 잡아 먹게 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앞에 정결한 동물들로 분류 되어 제사와 식용으로 사용된 모든 짐승들은 초식만 하는 동물들이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새김질을 하고 족발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다. 똑같이 초식만 하는 토끼나 코끼리가 왜 부정한 동물로 취급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로마서 9장)는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성경은 그 선택이 창조자의 권리라고만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서 보여 주셨던 보자기에 들어 있던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다'(사도행전 10:11-15)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

정결한 짐승들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일 뿐 실효성이 없었다(히브리서 10:4).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로 부정한 동물들을 식용으로서 금지하는 법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 질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에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 했다. 맨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된 아담을 대신하시려 죄 없었던 정결한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최우성 박사
생리학



ITCM 인턴과정 진행 중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된 창조과학 인턴십 프로그램인 ITCM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초 숙소가 딸려있는 사무실 이전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중순에는 탐사여행을 참석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창조과학이 어떻게 참석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첫 주는 자체적인 필드trip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며, 특별히 증거들을 통해 빙하시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의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사역자를 발굴하는 계기를 삼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ITCM으로 지금까지 2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음 5기 ITCM은 올해 12월 말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ITCM Field Trip - Death Valley에서

니다. ITCM은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아시는 손길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기감 도봉지방회와 행복한교회

지난 1월 21-24일 한국의 기독교 감리교 도봉지방(인도 임성수 목사)과 행복한교회(담임목사 박진성) 청년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임성수 목사님께서 몇 년 전 탐사여행에 참석하신 후에 젊은이들을 이끌고 오실 장기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복한교회는 수 년에 걸쳐 매년 청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겨울방학 8주간의 인턴십을 받고 있는 ITCM 인턴들도 함께 참가하여 했습니다.



4기 ITCM 강의

예수전도단

지난 1월 28-30일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 연합(책임자 김영환 목사)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간사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예수전도단 사역 가운데도 성경이 사실됨을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오는 여름 방학시대 탐사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

지난 2월2일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과 지도 교수님이 함께 샌디에고 창조박물관을 견학하였고 오후에는 노아 홍수의 증거인 지층과 화석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베데스다대학에서는 대학과정에서만 성경적 관점으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필요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이 학교 뿐 아니라 다른 신학대학원들에서도 창조과학 강의가 개설 되어 성경적인 목회자가 배울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WAM 탐사여행 중 강의

주님의영광교회 특강

지난 1월 6일부터 27일까지 4 번의 주일 특강을 마쳤습니다.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는 매 년 12회의 주일 특강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4주 연속으로 3회 다양한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5월 12일 - 6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창조과학 세미나

지난 1월 23일 Immanuel's Church, Silver Spring, MD에서 김선옥 박사의 인도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통해 우리의 2세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여기 저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주소

창조과학선교회가 지난 1월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거리에 있는 Norwalk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인 ITCM 참가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 되었습니다.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새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물 주소(Mailing Address): P.O. Box 819, Norwalk, CA 90650

사무실 주소(Office Address):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전화 번호: 213-381-1390

e-mail: HisArk@gmail.com

한국 기감 도봉지방회와 행복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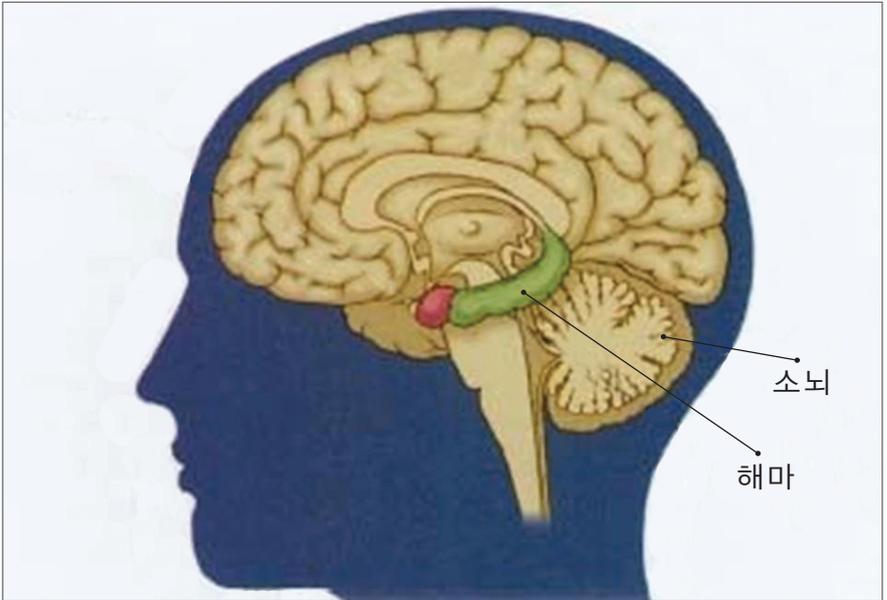
유아의 언어 습득

성장하는 인간의 뇌는 대략 1살 정도부터 놀라운 속도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심지어 6개월부터 유아의 두뇌는 기초적인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유아가 언어의 기초들을 습득한 지 몇 달이 지나면 뇌는 곧 언어 습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신비하게 언어를 습득하도록 이끄는 과정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 언어를 습득하는 동안, 유아는 목과 혀 그리고 격막 근육을 조합해서 어떻게 언어의 소리를 바르게 낼지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한다. 또한, 단어, 접미사, 그리고 억양과 같은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 구조를 배운다. 동시에,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법적인 규칙들도 습득한다. 유아가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동안 배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언어의 소리와 구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스스로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시기에 유아는 매일 10~15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울 뿐 아니라 스스로 문맥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이 시기에 유아의 뇌가 언어를 빠르게 배우도록 고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했던 한 연구에서 19명의 6개월 된 유아들의 뇌 구조를 MRI로 촬영했다. 그리고 그들은 뉴런(neuron, 신경세포)이 풍부하게 포함된 회색 물질의 농도와 뇌에 전체적으로 있는 하얀 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인의 소뇌는 근육 작용으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운동 학습(motor learning)을 조정한다. 또한, 성인 뇌의 해마는 기억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언어와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소뇌와 해마에 더 짙은 농도의 회색과 흰색 물질이 있는 아이들이 1세가 되었을 때 더 훌륭한 언어 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언어를 배우는 동안 소뇌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유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언어를



배우는 지를, 그리고 해마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소리로 그 언어의 의미를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뇌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듯하다.

지구 상에 어떤 동물도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동물의 뇌도 언어 습득을 위해서 그렇게 정교하고 놀랍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 연구를 통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부여 받은 존재로 인간을 빚으신 창조주의 작품을 엿볼 수 있다.

Brian Thomas, M.S. Science Writer at t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출처: <http://www.icr.org/article/7252>

번역: 조희천 (창조과학선교회 2기 인턴쉽 및 제 1기 ITCM-1 수료자)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4)



아담 이전의 죽음과 병

진보적 창조론자들은 화석기록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살다가 죽은 수백만의 동물들이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죄 이전에 죽음, 피흘림, 질병(암을 포함하여)이 있었다는 생각을 수용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쳤을 때, 그의 창조물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했다. 성경은 사람과 모든 동물이 타락 이전에는 채식을 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창 1:29). 식물들은 음식으로 주어졌다(식물들은 사람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네폐쉬(살아있는 영)를 갖지 않았기에 식물을 먹는 것은 성경적 관념으로는 “죽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세상으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로스 박사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는 피조물의 신음은 150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수많은 별들에게 영향을 주어

왔다”라고 썼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다르게 가르친다. 사도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롬 5:12)고 기록 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세상에는 죄가 없었으므로 죽음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첫 번째 동물을 죽였으며 피가 흘렀다- 죄 이전에 만약 죽음, 피흘림, 질병, 고통이 있었다면 속죄에 대한 기초는 파괴된다. 그리스도는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다. 완전한 “회복” 때는 어떤 죽음과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 이전에 완전한(“매우 좋은”) 창조였을 때도 그와 똑같았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 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미 존재했던 대부분의 피조물이 잔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 방식으로 진화된 우주와 지구를 상상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무능력하고 무자비해야 한다. 점진적 창조는 진화론적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방법이라고 제안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더럽힌다. 이러한 견해는 그분의 진실성도 공격한다. 만약 정말로 수십억년의 과정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4,000 년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속이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AFTER EDEN by Dan Lietha

©AIG 2012

306

AnswersInGenesis.org

생명의 창조자들 없다!

인생은 목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탐방여행

10/28-11/01

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을까 고민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고민하던 것에 해답을 얻게 되어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의 고민을 이번 여행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열정으로 강의해 주시는 이재만선교사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나라 학생들과 청년 성도들과의 여행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 이재순 목사 <순복음삼릉교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도 진화론자들에게 창조의 근거를 말하는 것은 항상 빈약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홍수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어 기쁘고 성경의 창조 부분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교과서가 진리인줄 믿고 특히 과학책이 거짓말인 것을 모르고 지나온 게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거짓 그 패러다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신앙적 삶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내 패러다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아가야겠습니다. - 김향숙 <영등포 광야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대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실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만선교사님! 5일간의 열정적인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사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 이희진 <나누리공동체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 예입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Fact)이라는 것에 2-3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미후 집사 <인천계산장로교회>

천지 창조가 6일에 완성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도 하루에 만들어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받은 감동을 이웃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천상 집사 <영등포 광야교회>

이재만선교사님께서 찾으신 여러 가지 창조에 관한 증거를 보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처음엔 온누리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 그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 직접 주님이 심판하신 모습을 보고 처음이 얼마나 더 좋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권민재 <상도 중앙교회>

기대했던 것 보다 너무 행복하고 제 인생 중 잊지 못할 5박6일 탐사여행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되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노아홍수의 흔적과 증거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을 보며 멋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공포심도 들었습니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20대의 젊음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즐기보다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멋진 청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박혜진 <영신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창조와 심판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역사의 증인을 보았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모든 힘을 쏟으려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노아홍수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OK 할 때까지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미순 <세월진원교회>

창조과학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알던 상황에서 탐사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창조과학과 진화론의 대립이 단순히 인류의 기원에 대한 두 이론의 논쟁인줄로만 알았는데, 교회의 사할과 기독교의 존립이 달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화론보다는 추상적이고, 증거보다는 믿음이 우선시 되는 줄로만 알던 창조과학이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더욱 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요셉 <장안제일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성경)과의 관계에 진화론을 의심한 적도 없었고, 성경을 통하여 창조를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탐사를 통하여 창세기에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와 죄로 인한 노아홍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층이 이루어진 것이 홍수의 대격변의 흔적과 사실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창조과학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형 <마산교회>

너무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 교회의 확실한 운영을 위한 생각들, 특히 과학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번 참가가 저 자신의 패러다임을 더욱 확고히 확정하게 된 점입니다. 제일 큰 유익을 제가 얻고 그것으로 더욱 큰 유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 고성제 목사 <평촌 평성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3/1-25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 3/1 Agape Christian Fellowship,
James Madison University, Harrisonburg, VA(김선옥)
 - 3/2-3 이한교회 (이재만), 한국
 - 3/9 대전은누리교회 (이재만), 한국
 - 3/10 행복한교회 (이재만), 한국
 - 3/11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한국
 - 3/12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3/13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 3/14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 3/16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이재만), 한국
 - 3/17 평촌평성교회 (이재만), 한국
 - 3/18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 3/19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3/20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 3/21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 3/23-24 명동교회(이재만), 한국
-
- 4/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침례교회,KM), 이재만
 - 4/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침례교회,EM), 김선옥
 - 4/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 4/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이재만
 - 4/20 Fairfax Korean Church, Fairfax, VA(김선옥)
 - 4/21 얼바인은누리교회 (이재만)
 - 4/22-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회 대전지부), 이재만
-
- 4/29-5/3 예수전도단 DTS (이재만), CA
 - 5/10-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1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